

원화 가치 추락… 자본유출·美금리 불확실성 ‘복합 압력’

환율 2거래일 연속 1470원 상회
올 해외증권투자 998억 달러 증가
200억 달러 對美투자 결정도 영향
美 실업률 4.4%… 불확실성 지속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증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으로, 이날 환율은 2거래일 연속 1470원을 상회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했다.

원화의 실질 가치도 최저 수준이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 환율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09(2020년=100)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8월(88.88)이후 최저치(원화 가치 최저)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 ‘자본유출’ 우려가 원화 약세 부추겨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해외 투자 증가와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뉴시스

국내 투자 감소 전망 때문이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많은만큼 수요 불균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화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된 것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달러다. 연간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조달해 투자하는 만큼 외환 시장 불안과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달러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도 상품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는 ‘래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 美 금리전망 불확실… 달러강세 지지 불확실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봤지만 첫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경제·고용지표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메시지는 금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9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연방정부 첫다운(업무 일시 중단)으로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이날 공개된 비농업 고용은 월가 전망치(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1만9000명을 기록했다지만 실업률도 4.4%까지 상승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더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를 더 내리면 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의 금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다음 FOMC에서 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서다. 24일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뉴욕 금리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7.3%로 전망한다.

◆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인하를 시사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국내증시 외국인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강달러 부담도 완화돼 위험통화인 원화도 과열됐던 통심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화 추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과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신임 사장에 이승호



삼성생명이 사장단 인사를 통해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부사장(사진)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1968년생인 이 신임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전무와 디지털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이후 2021년 삼성생명으로 이동해 자산운용본부장 부사장을 지냈으며, 2022년 말부터 금융경쟁력제고TF팀장 부사장 직을 맡아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삼성생명은 부사장 이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펜트하우스 거래 활발 청약경쟁률 15.08대 1 일반 아파트의 ‘두 배’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지만 ‘극소수만 소유할 수 있다’는 희소성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펜트하우스 타입의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08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일반 아파트 1순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단지별로는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트푸르지오’ 전용 142㎡P가 3가구 모집에 853명이 몰려 28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5-1양우내안애아스펜’ 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P에 269명이 청약하며 경쟁률이 134.5대 1을 기록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선보인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전용 125㎡PA도 3가구 모집에 321명이 몰려 경쟁률이 107대 1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 극히 일부만 공급되고, 최상층 조망권과 일조권, 넓은 전용면적과 높은 층고, 개방형 공간 등 일반 세대와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도 더해진다”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희소성 때문에 불황의 영향 없이 거래 시마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100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 31건 중 최고가는 지난 8월 거래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74㎡(47층) 펜트하우스로 290억원에 거래됐다. 3.3㎡(평)당 2억7800만원에 달한다.

/안상미기자

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불가… 당국, 약관개정 착수

고객에 메시지 등 개별 공지 해야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조사해 60개 조항을 시정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치 후 은행권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빠르게 약관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은행이 ‘기타 필요하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사진은 은행 ATM 기기.

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예측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금우대 등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은행 약관에서 일부 서비스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한 예금 상품도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 하는 일부 상품 약관도 개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GS건설, 美 수전해 기업과 수소생산 플랜트 패키지 개발

이달 말부터 본격 개발업무 착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 전환점

GS건설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

GS건설은 미국 수전해 기술 선도 기업인 이볼로(Evoloh)와 ‘음이온 교환막 기반 수전해 플랜트 패키지 개발’ 계약

을 맺고, 이달 말부터 본격 개발 업무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볼로는 음이온 교환막을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스택 제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음이온 교환막 기술은 수소 분리에 필요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 향후 스택 제작 및 플랜트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볼로는 메가와트(MW) 규모의 수전해 스택의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업생산에 착수,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GS건설은 국내외 풍부한 플랜트 EPC 사업 수행 역량과 이볼로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수백 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플랜트 패키지를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EPC 기술력과 경험을 접목해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수소 시장의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